

## 『주홍색 연구』: 낭만적 범죄자의 불법화와 추리소설의 탄생

강 관 수\*

(신경대학교 / 교수)

윤 천 기\*\*

(원광대학교 / 교수)

Kang, Kwansoo & Yun, Cheongie. *A Study in Scarlet: The Illegalization of Romantic Offenders and the Birth of a Detective Novel*.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1-22. Before a detective novel appeared, the voices of criminals were allowed. In the folktales and literary works, romantic offenders were praised as the heroes who rose against the ruthless rulers. However, they began to be perceived as a threat to a society as capitalism and the private property system were establish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ist society, they became criminals, and simultaneously a detective fiction was born. The important thing in the birth of a detective novel is that the public's feeling of empathy goes not to transgressing romantic criminals, but to the detectiv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cess of romantic criminals becoming illegal in *A Study in Scarlet*. In this work, a detective's search for the murderer is seen as an act of practicing justice and a revenge for a lover's death is a crime who violates the law. In doing so, a legal order is established and a criminal voice is oppressed and illegalized. (Shingyeong University & Wonkwang University)

Key words: detective novel, romantic offenders, revenge, justice, detective

### I

진정한 의미의 추리소설의 시작은 코난 도일(Conan Doyle)의 『주홍색 연구』(*A Study in Scarlet*, 1887)로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주홍색 연구』에서

---

\* 주저자

\*\* 교신저자

<sup>1</sup> 혹자는 에드가 앨런 포우(Edgar Allan Poe)의 두 작품, 『모르그가의 살인』

셜록 홈즈(Sherlock Holmes)라는 탐정과 함께 시작된 범죄에 대한 홈즈의 과학적인 분석방법은 이전의 서사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를 제공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증거에 입각한 과학적 추리방식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었고, 탐정의 과학적 추리를 따라가는 것은 독자들에게 작품을 읽는 즐거움 그 자체였다. 이러한 독자들의 경험과 다르지 않게 비평가들도 홈즈의 분석방법에 주목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홈즈 연구서들은 작품의 내적인 분석보다는 홈즈의 탄생과정, 홈즈라는 인물의 성격, 그의 과학적 추론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리소설의 구성상 범죄자의 범행동기보다는 범죄자를 잡아가는 추론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경향은 작품 자체의 분석에 소홀한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주홍색 연구』에 대한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살인자 제퍼슨 호프(Jefferson Hope)의 모험담과 범행동기를 담은 2부가 철저히 무시되어져 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탐정의 추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당연히 범인의 살인 동기를 범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2부의 내용은 극도로 단순화되거나 도외시 되지만, 사실 2부는 1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필자들은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범행 동기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홍색 연구』는 본격적으로 범인의 목소리를 탐정의 목소리로 대치함으로써 추리소설

---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1841)과 『도둑맞은 편지』(*The Purloined Letter*, 1844)를 최초의 추리소설로 보기도 하지만, 이후에 공식화된 추리소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작품은 엄격한 추리소설로 보기에는 결함이 있다. 비록 듀퐁(Dupin)이라는 사설탐정이 등장하고, 논리적 추리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지만, 정통 추리소설로 보기에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모르그가의 살인』은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람이 아닌, 오랑우탕으로 판명되면서, 추리소설에서 꼭 필요한 주인공과 범죄자간의 치열한 두뇌게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편지』에서는 살인사건으로 인한 시체가 나오기보다는 한 편지 잃어버린 편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단편 이야기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의 등장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건 중의 하나인 범죄자들 (살인자들과 도둑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봉쇄한다. 이는 탐정소설이 본질상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 즐기는 부르주아적 문학 형식이었고, 중산층은 탐정소설이 지니는 지적 유희에 탐닉하던 주된 독자 중의 하나였다. 그 결과 탐정소설이 중산층 시민계급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키팅(H. R. F. Keating)에 의하면,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홈즈와 왓슨은 이상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국 중산층 신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데(11, 28), 이는 탐정소설의 지향점이 중산계층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기득권 권력의 불의, 착취에 맞서서 ‘시적 정의’(Poetic Justice)를 실현하고자 했던 이전의 낭만적 범죄자 중심의 서사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경계의 대상이었고 잠재적 위협의 대명사였다.

실제로 추리소설의 등장 이전에는 범죄자들의 목소리가 허용되었다. 서양의 민담과 문학적 전통 속에는 낭만적이고 의로운 범죄자와 그를 불온시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존재해왔다. 프리드리히 실러(Friedrich Schiller)의 『군도』(*Die Räuber*, 1781)에 나오는 도둑들이나 잉글랜드 민담에 나오는 의적 로빈 후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중에게 영웅으로 회자 되었다. 부패하거나 압제적인 공권력과 탐욕스러운 지배자들 때문에 민중들이 고통을 받을 때, 억압적 지배에 항거하여 도적 활동을 한 자들에 대한 낭만적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마르크스주의 비평가인 에른스트 만델(Ernst Mandel)은 도적들을 미화시키는 서구의 낭만적 전통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으로, 이들은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는 ‘사회적 악당’들이었다고 말한다(13-14).

하지만 의로운 악당들에 대한 미화된 서사는 전근대적인 절대권력 체제가 와해당한 후에 사유재산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면서, 사

회질서를 위협하는 담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근대 시민계급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 기득권, 그리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장치들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법적인 장치들은 시민 법치주의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때 시민계급의 범위에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계층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 법치주의는 봉건적 소유제를 폐지하고, 시민계급의 이해관계를 자유와 소유권(재산권)을 기본권의 본질로서 제도화한 것인데, 자유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축적한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유권(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는데, 재산의 보장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장은 당연한 전제였다(황도수 179-80).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도적과 강도들은 이제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범죄자가 되어버리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을 담론적으로 불법화시키는 과정에서 탐정소설은 탄생한다. 그런 면에서 도로시 L. 세이어즈(Dorothy L. Sayers)가 대중적 공감대 범죄자의 교활함과 기민함을 칭송하는 경향에서 ‘법과 질서’의 편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탐정소설이 발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률을 존중하는 대중들의 분위기가 강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탐정소설이 발전한 데 반해서, 법이 덜 존중받았던 유럽 남부에서는 탐정소설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세이어즈 16-17).

『주홍색 연구』는 대중들의 공감대가 의로운 활동을 하는 낭만적 범죄자로부터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탐정에게로 변화하는 과정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의 본격적인 탐정소설로 간주되는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A Study in Scarlet, 1887)를 중심으로 낭만적 범죄자들의 서사가 어떻게 봉쇄되고 불법화되는지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 II

유럽에서 범죄자들을 미화시키는 이야기가 탐정소설 이전에 크게 유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사형수의 마지막 말들』(*Gallows Speeches*)과 영국의 『뉴게이트 캘린더: 악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기록집』(*The Newgate Calendar: The Malefactors' Bloody Register 1774*)<sup>2</sup>라는 이야기 모음집이다. 이 이야기들은 처형 직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후회하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뉴게이트 캘린더: 악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기록집』은 대중들에게 처벌의 정당성을 통한 법의 승리를 선전할 목적으로 사법당국이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범죄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했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범죄자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행위를 미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들은 사형수들을 의로운 도적들이나 억압적인 권력에 탄압받는 희생자들로서, 그들의 행위는 부당한 사회와 권력층에 대한 복수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영국에서 ‘뉴게이트 소설’(Newgate Novel)로 발전했다. 19세기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뉴게이트 소설인 『폴 클리퍼드』(*Paul Clifford*, 1830), 『유진 아람』(*Eugene Aaram*, 1832), 『록우드』(*Rockwood*, 1834), 『잭 쉐퍼드』(*Jack Shepherd*, 1838) 같은 작품들이 출간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소설들은 실제 사건을 범죄자의

---

<sup>2</sup> 1700년부터 세간에 회자된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원래는 매달 나오는 런던의 뉴게이트 감옥의 간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에 관한 홍보용 고시문(bulletin)이었으나, 1773년에 총 5권으로 편찬된 연대기로 편찬되었다. 이 연대기에 실린 범죄 기록, 범죄자, 사건 개요들은 당대의 유명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뉴게이트 소설’을 탄생시켰다(김외현 2).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범죄자를 신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잭 셰퍼드』는 감옥을 탈출한 도적의 이야기를 센터멘탈리즘과 멜로드라마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면서, 도적을 낭만적 영웅으로 만들었다. 잭 셰퍼드의 이야기는 소설과 연극으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독자와 관객들은 소설과 연극 무대 위에서 재현된 낭만적 도적과 자신들을 동일화시키면서, 사회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을 예찬하였고, 그 결과 ‘잭 셰퍼드 주의’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불러일으켰다(계정민 75-78). 푸코가 권력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공개처형의 의도가 실패로 끝난 것을 지적할 때와 마찬가지로, 잭 셰퍼드의 처형은 잭 셰퍼드를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소비자인 노동계급과 하층민들에 의해 낭만적인 영웅으로 변형되었다. 뉴게이트 소설이 인기를 끌자, 당시의 지배계급은 우려와 경계의 시선을 보냈고, 이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를 미화한 뉴게이트 소설의 전염성 강한 전복성이었다.

범죄 문학에 대한 우려는 1848년의 노동자들의 봉기로 세워진 파리공문과 1838-1848년에 걸친 노동계급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노동운동을 통해서 등장한 노동계급의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과 궤를 같이한다. 노동계급의 등장은 부르주아 시민계급을 불안에 몰아넣으면서, 법질서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부르주아 시민계급에게 법적인 질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절대왕정의 억압과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파리공문을 전후한 노동운동의 등장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부르주아 시민계급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민계급은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다시 법치주의적인 질서의 확립을 요구했다. 범죄자들의 처벌을 옹호하는 탐정소설의 등장은 시민계급의 질서 수호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코난 도일의 노동계급을 불신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탐정소설의 서사에서는 탐정이 영웅으로 등장하고,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인물들을 의적이나 사회적인 희생자가 아닌 범죄자로 그려지면서, 법

치주의적인 질서가 확립된다. 이제 탐정소설은 낭만적 반항아들의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적 통치 질서를 확립한다. 아무리 대중/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중/독자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관점이었고, 탐정소설의 기본 전제였다. 탐정소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플롯에서 바뀔 수 없는 것은 범죄자의 계획적인 범죄를 탐정이 치밀한 추리로 밝혀내고, 그를 법의 그물 속에 가두고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아무리 독자들의 연민을 자아내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정신과 탐정소설의 정신은 서로 통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탐정소설의 등장과 법치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군주가 범죄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형태로서의 공개처형이 지닌 효과가 상실되어가는 시기에 형벌 제도의 개혁자들(인도주의자들과 부르주아 개혁가들)은 새로운 법질서를 만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범죄자를 미화시키는 기록물들이 금지되고, 새로운 범죄문학인 탐정소설이 등장하는데, 탐정소설에서는 범죄자의 영광보다는 사악하고 두뇌가 뛰어난 범죄자가 조용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두드러진다(푸코 102-104).

최초의 장편 탐정소설로 인정받는 『주홍색 연구』는 이러한 탐정소설의 탄생과정을 잘 드러내 주는 작품이다. 살인범인 제퍼슨 호프는 사랑하는 애인을 빼앗기고, 그녀가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비극을 가져온 악당들에게 복수한다. 호프의 복수는 악당들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행위로서 시적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탐정소설은 그의 분노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처벌하는 결말로 끝맺는다. 당시에 유행했던 알렉산더 뒤마(Alexandre Dumas)의 『몽테크리스토 백작』(*Le Comte de Monte-Cristo*, 1845-1846)은 복수를 시적정의를 실현되는 장치로서 바라보고 있다. 복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서 몽테크리스 백작으로 위장한 에드몽 단테스는 완벽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지만, 음울한 어두움의 편이 아니라, 빛의 편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악

을 행한 자들에게만 철저하게 복수를 했고, 죄가 없는 자들은 용서하면서 복수를 낭만적인 행위로 만들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대표되는 복수극에서 복수라는 행위는 시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낭만적 행위이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장치이다.

하지만 코난 도일은 『주홍색 연구』에서 살인범 호프가 보여주는 복수에 대한 정당성보다는 홈즈의 사건 추리 과정과 과학적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사건의 추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탐정의 입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때 초점은 탐정의 기지에 있는 것이지, 범죄자의 억울한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탐정소설에서 정의는 탐정이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게 될 때 확립된다.

탐정의 관찰과 추리를 통해 범죄자를 밝혀낸다는 탐정소설의 전제는 이야기의 진행과정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야기는 극 중 화자인 왓슨(Watson)의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독자들은 왓슨이 처음 만나는 홈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왓슨의 설명을 따라 홈즈의 사건에 대한 추리를 따라간다. 이 때 살인자인 호프의 모습은 수수께끼의 범인으로만 제시될 뿐이다.

사건의 시작은 브릭스톤 가의 로리스턴 가든 3번지의 한 저택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신사가 죽어 있었는데, 사방에 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으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왓슨은 기술하고 있다.

경직된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서는 증오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은 지금까지 인간의 얼굴에서는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악의로 가득 찬, 그리고 끔찍하게 뒤틀린 얼굴은 낮은 이마, 뭉툭한 코, 튀어나온 턱과 합해져 마치 원숭이처럼 보였고, 이 모습은 몸을 뒤틀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함께 한층 더 그렇게 보였다. 나는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런던 교외의 주간도로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방에 있는 시체보다 더 공포스러운 모습을 본 적



이 없었다. (*A Study in Scarlet* 25-26)

시체에 대한 묘사는 많은 탐정소설의 사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서술이다. 왓슨의 묘사에서 보여주듯이 사건은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얼굴에는 공포 또는 증오가 서려 있고, 몸은 뒤틀려 있는 상태로서, 끔찍하고 공포스럽게 보였는데, 외부적으로는 어떤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시체와 관련된 단서라고는 주머니 안에 있는 명함을 통해서 이녹 J. 드레버라는 이름과 시체 근처에 놓여 있는 결혼반지, 그리고 방 한쪽 벽에 붉은 피로 쓰여진 “Rache”라는 단어뿐이었다. 사건의 기괴함과 빈약한 단서 때문에 경찰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데, 경찰이 보여주는 당혹감은 탐정소설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탐정이 나오는 추리소설에서 영웅은 탐정인데, 그를 영웅적 아이콘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류를 범하는 어리석은 경찰의 모습이 등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이 작품에서는 레스트레이드(Lestrade) 경감과 그렉슨(Gregson) 경감이 담당한다. 이들에 대해 홈즈는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형편없는 집단에서 그나마 나은 인재들이야. 둘 다 민첩하고 의욕에 넘치지만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정말 놀랄 정도로 말이야”(22)라고 평가하면서, 경찰의 무능력을 조소하는 장치로 이들을 사용한다.

모두가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개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홈즈는 시체에 외상이 없다는 사실에서 독에 의한 살인이며, 사건 현장에 피가 여기저기 묻어있다는 사실에서 이 피는 범인이 흘린 코피로서, 범인은 다혈질이며, 얼굴이 불그스레 할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해 낸다. 홈즈는 『베스커빌가의 개』(*The Hound of the Baskerville*, 1901~1902)에서 “기이하고, 기괴한 사건일수록 더 주의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법이야. 제대로 들여다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이 사건을 풀어주는 지점이거

든.”(155)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홈즈에게는 아무리 사건이 기이하고, 기괴하더라도, 현실을 넘어서는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추론에 따르면, 외상의 흔적이 없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독에 의해 살인이다.

또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벽에 쓰여진 ‘Rache’라는 글씨를 ‘Rachel’이라는 여성의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당황해서 글씨를 다 쓰지 못했다고 추론하면서,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때 홈즈는 ‘Rache’는 ‘복수’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에서 나온 것이며, 사건이 복수와 관계있음을 지적하면서, 사건 조사의 방향을 수정한다. 하지만 독일어로 쓰여진 ‘복수’라는 단어 때문에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신문들은 당시에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사상이 유행한 독일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이 급진주의 테러리스트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떠들어대지만, 이에 대해 홈즈는 일침을 가한다.

딱한 레스트레이드가 발견한 글씨는 마치 사회주의나 비밀조직의 소행인 것처럼 암시하여 경찰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야. 그건 독일인이 쓴 것이 아니야. 자네도 알아차렸을 것이지만, 글의 A는 그럭저럭 독일식을 따라서 썼더군. 그런데 진짜 독일 사람들은 변함없이 라틴 글자체를 쓴다네. 그러니 그건 독일인이 쓴 게 아니고 지나치게 과장하다가 제 껍에 자기가 넘어간 서투른 모방이라 할 수 있지. 그건 조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려는 계략이야. 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A Study in Scarlet 33)

홈즈는 글자가 쓰여진 모양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독일인들이 글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사건이 급진주의자들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사건을 사회주의나 비밀조직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는 범인의 시도가 오히려 홈즈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해준다. 사실 홈즈의

예측대로 사건은 복수에 얽혀 있는데, ‘Rache’라는 단어는 전체적인 사건의 의미와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수에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복수와 범죄조직에 의한 복수(보복)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주홍색 연구』에서는 서로 얽혀있다. 살인사건의 직접적 동기는 제퍼슨 호프의 개인적 복수 때문으로 밝혀지지만, 그의 복수는 ‘복수 천사단’(Avenging Angels)이라는 테러조직의 보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과 연관이 있다. 또 호프는 자신의 복수를 테러집단의 보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독일어 ‘Rach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사실 통속적인 문학과 영화에서 낭만적인 악당들이 범죄현장에 자신의 표식을 남기는 것은 하나의 멋으로 간주되어 왔다. 의적 일지매(一支梅/한 떨기 매화꽃)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표식을 현장에 매화꽃을 남기며, 괴도 루팡 역시 자신의 명함이나 짧은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표식을 남긴다. 호프도 피로 쓴 글씨를 현장에 남김으로써 살인의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사건의 혼선을 유도한다. 낭만적인 도적 이야기에서 자신의 표식을 남긴 것에 대해서 악당들은 낭만적 영웅으로 미화되지만, 탐정소설에서 현장에 남겨진 표식은 풀어야 할 단서, 즉 수수께끼로 제시될 뿐이며, 이 수수께끼를 푼 탐정이 영웅이 되는 것이다.

또 범죄자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이들을 불법화시키는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작품의 구성방식이다. 『주홍색 연구』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홈즈가 범인을 추적하여, 잡아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2부에서는 범인의 범행동기를 범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결말에서는 홈즈가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관심을 끄는 부분은 1부이다. 홈즈라는 사립탐정의 등장과 그의 추리과정으로서 작품에 대한 분석 역시 1부에 대부분이 집중되면서, 범인을 잡는 홈즈의 분석적 추리작업에 초점에 맞춘다. 그 과정에서 범인이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2부의 내용은 무시되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 우리는 작품의 1부에서 제퍼슨 호프가 너무나 무미건조한 평범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프는 코난 도일의 이후 작품에 등장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악당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호프를 이야기 전개를 위한 장기말로 삼았기 때문이다(데이비스 43). 1부에서 호프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는 것 이외에는 너무나 평범해서, 호프는 홈즈의 적수로서 인상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다. 호프가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부분은 2부인 「성도들의 땅」인데, 2부는 호프의 범죄 동기를 멜로드라마적인 모험담의 형태로 호프의 입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상세히 기술한 것에 대해서, 부쓰(Booth)는 어설픈 회상장면을 집어넣음으로써, 소설이 정교한 짜임새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96). 피어살(Pearsal) 역시 이 부분은 작품을 구조적 측면에서 혼란스러우며, 좋아하기 힘든 종류의 멜로드라마적인 서투른 구성이라고 지적한다(30).

사실 코난 도일은 기존의 탐정소설이 가지고 있던 멜로드라마적인 센세이셔널한 구성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사건의 해결이 탐정의 독자적 추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이었다(스캐스 28). 『주홍색 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홈즈의 탄생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2부를 단지 범죄의 동기를 서술하는 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부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는 것을 작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2부는 『주홍색 연구』라는 작품이 탐정소설의 탄생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데 매우 가치 있는 도움을 주는데, 이 때 많은 분량을 할당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코난 도일은 탐정소설 작가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모험소설 작가였다. 도일은 『주홍색 연구』에 이국적인 매력을 풍기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코난 도일의 다른 작품인 『네 사람의 서명』(*The Sign of Four*, 1890)에서의 야만적인 원주민, 『얼룩띠의 비밀』(*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1892)에서 로일롯 박사가 키우는 인도 살모사, 『다섯개의 오렌지 씨앗』(The Five Orange Pips, 1891)의 미국의 KKK 테러집단, 『곱사등이 남자』(The Adventure of the Crooked Man, 1893)에서 세포이 전쟁 같은 이국적인 요소들은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의 2부는 탐정소설을 거친 서부의 모험적인 사건과 결합시키고 있는데, 서부 이야기는 통속 소설 작가인 네드 번틀린(Ned Buntline)이 창조한 버팔로 빌(Buffalo Bill)의 모험담과 같은 이야기를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와 결합시키고 있다. 사실 코난 도일의 기질과 재능에 잘 맞는 것은 통속극이었고, 도일은 영웅들을 좋아했는데, 호프는 신파조 서부극의 주인공으로 적합한 인물이었다(피도 184-86). 하지만 서부의 영웅이 런던이라는 대도시에 들어왔을 때를 다룬 1부는 그가 더 이상 낭만적인 영웅이 아니라 힘만 썬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낭만적 영웅의 죽음으로부터 탐정소설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sup>3</sup>

호프의 범죄 동기를 다룬 2부는 유타주의 황량한 사막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풍광을 보여준다. 2부는 제퍼슨 호프의 시선으로 복수의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과 복수에 얽힌 낭만적인 모험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은 애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이루어진 살인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문학작품에서 정의는 시적 정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프의 복수는 시적 정의를 구현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빼앗긴 애인 루시와 루시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호프의 복수는 시

<sup>3</sup> 서부영화와 갱스터영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영화비평가인 토마스 샤프츠(Thomas Schatz)는 서부의 영웅이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파괴적 힘과 에너지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서부의 영웅과 지하세계의 갱스터는 거울의 양면에 존재하는 두 존재처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으며,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로 들어온 서부 영웅의 이야기가 갱스터 영화라고 샤프츠는 주장하는데, 이는 호프의 경우에 잘 적용된다(82-84).

적정의가 구현된 윤리적 행위인 것처럼 보인다(김상욱 8, 15).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의 복수극을 내용으로 하는 멜로드라마 소설인 『몽테 크리스트 백작』같은 작품에서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호프는 이 작품에서 사악한 악당들을 응징하는 정의의 구현자가 아니라, 법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서 그려짐으로써 정의는 호프의 편에 있지 않다.

정의의 구현이라는 말이 탐정소설에서 갖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 결과로 처벌이 뒤따르며, 법적 질서가 확립된다는 점에 있다. 작품에서 호프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그를 정의로운 복수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범죄자는 미워할 수 없지만,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적인 가치는 탐정소설의 결론을 장식하고 있다. 주홍색 연구의 초점이 2부인 「성도들의 땅」이 아니라, 1부인 「전 육군 군의관 존 H. 왓슨의 회상록」이라는 사실은 이 작품이 어떻게 범죄를 봉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부에서 제시된 호프의 낭만적이고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1부에서는 힘만 센 특징이 없는 인물로 묘사된 것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탐정소설에서 복수는 범죄일 뿐이다. 코난 도일은 호프를 낭만적인 복수자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았다. 코난 도일은 이후에 쓴 복수를 다룬 『네 개의 서명』과 『곰사들이 남자』에서 복수자들의 모습을 추악하게 그려내면서, 어떤 동정도 받을 수 없는 범죄자로 재현한다. 탐정소설에서는 도적들과 복수자들에 대해 언급할 때, 로빈 후드의 ‘로빈’(종달새)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자유로움, 의적 일지매의 ‘한 떨기 매화꽃’처럼 곧고 올바름과 같은 낭만적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탐정소설은 이전의 범죄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범죄자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과는 크게 벗어나 있다. 근대 시민계급의 등장과 사유재산제 사회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탐정소설은 범죄자에 대한 연민과 낭만적 환상을 제거해버렸으며, 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가차 없이 감옥에 보내버림으로써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부의 ‘성도들의 땅’은 봉쇄된 목소리로 제시된

다. 2부는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더 많은 새로운 아라비안나이트의 이야기들』(*More New Arabian Nights: The Dynamiter*, 1885)의 기본이야기 구조를 빌려온 것으로 모험적인 멜로드라마적 성격을 띠고 있다(Pearsal 30). 두 이야기는 모르몬 교도들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과 공포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다. 코난 도일의 모르몬교에 대한 묘사는 그 진실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타자의 담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코난 도일은 대영제국의 보어전쟁을 열렬히 옹호했고, 제국의 팽창과 식민지 지배를 찬양했으며, 여성의 참정권 확대에 대항했던 열렬한 보수주의자였다(Higham 74). 그에게 위협은 무정부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과 같은 정치적 급진주의자들과 KKK단과 같은 단체들, 이교도들, 그리고 야만인들로 대변되는 타자들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협적 조직들은 배신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당시에 악명이 높았다. 복수 또는 보복적인 행위를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선은 코난 도일의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다섯개의 오렌지 씨앗』과 『공포의 계곡』에서의 KKK단이나 이탈리아의 비밀조직 등에서의 복수/보복은 코난 도일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다.

타자들의 위협 중의 하나는 미국이라는 ‘야만의 땅’에 존재하는 광적인 그룹들 가운데 하나인 모르몬교로부터 온다고 도일은 생각했다. 특히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유타주의 모르몬교의 도시는 코난 도일을 비롯한 당시의 영국인들에게는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테러리스트들과 동일시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집단들은 배신자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가하는 것으로 악명높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범죄는 애초부터 도일의 흥미를 끌었고, 작품 속의 홈즈 역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미국의 서부는 거친 무법의 땅이었고, 이 무법의 땅을 배경으로 모르몬교는 장로들이 정한 법에 도전하는 이들을 벌하기 위해 브리검 영(Brigham Young)에 의해 다니츠

(Danites) 또는 복수 천사단이라는 테러부대가 만들어졌다고 당시의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코난 도일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는데, 도일은 남에게 자신의 신조를 강요하는 이러한 테러리스트 집단을 혐오했다(피도 268-70).

『주홍색 연구』에서도 언급된 모르몬교는 “박해를 받았던 희생자들이 이전 반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박해하는 사람,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며,” 복수 천사단에 대해서도 “스페인 시빌리의 종교재판소나 독일의 비빌 재판, 이탈리아의 비밀결사 단체들도 유태주에 먹구름을 드리운 비밀조직보다 더 무시무시하지는 않았다”(80)라고 책에서 언급되고 있다. 모르몬교의 교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자들은 복수 천사단에 의해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다. 복수 천사단은 박해를 받고 이주한 모르몬교가 교인들에게 스스로 박해자가 되어버린 것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모습은 『주홍색 연구』에 공포감의 형태로 잘 드러나 있다. 2부의 시작은 이러한 공포감을 미국 서부의 황량한 사막의 풍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거대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부에는 아주 건조하고, 혐오스러운 사막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문명의 발달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왔다. 시에라네바다에서 네브라스카까지. 그리고 북부에 있는 엘로스톤 강에서 남부의 콜로라도까지는 황량하고 적막한 지역이었다. 이 냉혹한 지역에는 자연도 감정이 일정치 않았다. 꼭대기에 눈이 쌓여있는 높은 산맥도 있었고, 어둡고 음울한 계곡도 있었다. (...) (...) 하지만 그 지역들은 모두 메마르고, 호의적이지 않고, 비참하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절망의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A Study in Scarlet* 63)

북미 사막지역에 대한 묘사는 코난 도일이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로 즐겨 사용했던 다른 지역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다. 『바스커빌가의 개』에서



다트무어(Dartmoor)라는 황무지는 늪지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을 빼고는 이 사막에서 묘사된 분위기와 비슷하다. 이 장소는 뭔가 불길하고, 음침하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불모의 사막”, “황량하고 적막한 지역”은 모두 “메마르고 무뚝뚝한” 절망의 땅이었다. 이러한 곳을 배경으로 한 남자(존 페리어)와 한 여자아이(루시)가 길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길을 지나던 모르몬교도 일행이 이들을 구해 주는데, 이때 무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너희를 데리고 가려면,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축사에 늑대들을 둘 수는 없다”(72)고 말한다. 두 남녀는 이에 동의하고 그들을 따라 모르몬교도가 된다.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그 지역에서 성공한 유지가 되고 루시라는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게 되고, 루시는 ‘유타의 꽃’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아름답게 성장한다. 그런데 페리어는 상당한 지위와 부를 얻었음에도 결혼하지 않았고, 루시는 제퍼슨 호프라는 기독교도 청년과 사랑에 빠진다. 이는 브리검 영이라는 지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데, 그는 페리어를 찾아와 루시를 스테거슨 장로나 드레버 장로의 아들과 결혼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는 “성 조지프 스미스가 말씀하신 13번째 계명이 무엇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여인은 하나님의 신민과 결혼할지이다. 그렇지 않고 이교도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니라”(82-83)라고 경고하면서, 30일의 기한을 준다. 하루를 자고 일어나자 그들의 이불자락에 종이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종이쪽지에는 “개심할 기한이 29일 남았다. 그 다음엔...”(87-88)이라고 적혀 있었고, 매일 종이쪽지가 날아든다. 이제 두 부녀에게 복수천사단의 죽음의 경고장이 날아든 것이다.

위험을 느낀 부녀는 제퍼슨 호프와 함께 필사의 탈출을 하다가, 복수천사단에 붙잡혀 존 페리어는 죽음을 당하고, 루시는 드레버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 이를 안 호프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일생을 복수에 바치리라 결심했다. 제퍼슨 호프에게는 꺾을 수 없는 인내심과 열정, 그리고 한때 함께 살았던 인디언들한

테 배운 집요한 복수심이 있었다.”(98) 그는 평생을 복수의 대상인 스텐거 슨과 드레버를 찾아 다닌다.

복수의 주제는 낭만적인 멜로드라마에서는 종종 파괴된 정의를 회복하는 행위의 원천이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회가 이를 지켜주지 못할 때, 복수는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정당한 행위이다. 적어도 작품의 2부만을 보면 복수가 시적정의를 회복하는 행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탐정소설의 등장을 알리는 『주홍색 연구』에서 정의의 회복은 범죄사건이 해결되고 범죄자를 체포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는 1부에서 언급된 주홍색 실에 대한 비유에서 잘 드러나 있다.

자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사건 현장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연구를 놓쳤을지 몰라. 그걸 ‘주홍색 연구’라고 할까? 약간의 예술적인 표현을 사용해보도록 하지. 인생이라는 무채색 실 꾸러미 속에 살인이라는 주홍색 실이 얽혀 있어. 우리 임무는 엉킨 실을 풀고, 주홍색 실을 가려내서, 그것을 낱알이 밝히는 것이지.

(A Study in Scarlet 37)

앞의 인용문은 『주홍색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홈즈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관철되고 있다. 홈즈는 인생을 무미건조한 무채색 실 꾸러미에 비유하면서, 그 속에 주홍색 실이 섞여 있다고 말한다. 주홍색은 피의 색깔이며, 동시에 죽음과 범죄의 색깔을 의미한다. 홈즈의 역할은 주홍색 실(범죄)을 하얀 실들이 묶여있는 실패에서 골라내어, 밝혀내고, 제거하는 것이다. 홈즈에게 평화로운 삶은 ‘무채색 실’처럼 무미건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스커빌가의 개』와 같은 이후의 작품에서 홈즈는 주의를 끌 범죄가 없을 때 마약에 빠져들거나 바이올린을 켜면서 삶의 권태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

주홍색은 1부와 2부를 관통하는 색깔이지만, 1부와 2부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 주홍색은 붉은 피, 뜨거운 피 그리고 낭만적인 열정의 표시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 주홍색은 범죄의 색깔이지 낭만적인 복수의 색깔이 아니다. 코난 도일은 2부의 모험적 이야기에 담긴 낭만적 범죄의 색깔로서의 주홍색을 봉인해 버린다. 코난 도일은 1부에서의 셜록 홈즈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말에서는 해결된 사건을 홈즈의 입을 통해서 정리한다. 결말의 핵심적 내용은 홈즈가 분석적 추론방법을 통해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갔고, 범인을 잡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독자들은 이제 제퍼슨 호프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홈즈가 보여주는 추리에 매혹되어 버린다. 홈즈의 추리 속에서 제퍼슨 호프는 범죄자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호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격적인 탐정소설과 셜록 홈즈의 등장이 낭만적인 범죄를 불법화시키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탐정소설의 발전에서 범죄자들은 ‘사회적인 의미’(저항과 정의의 회복)를 박탈당하고, ‘개인적인 의미’(원한에 의한 살인) 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만델 26). 탐정 소설과 함께 낭만적인 범죄자들의 목소리는 범죄자의 범행동기라는 표현 속에서 억압되고 봉쇄되어진 채, 악인들을 응징하는 시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개인적 행위는 금지되고, 이제 법과 질서의 편에 선 탐정이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 III

탐정 소설의 등장과 함께 도둑들과 복수자들을 미화하는 낭만적 시대는 사라졌고, 대신 이들을 모두 불법적 범죄자로 처벌하는 범치주의적인 통제의 시대가 도래 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도둑들과 복수자들에게 의한 살인 행위는 그 나름의 시적 정의와는 상관없이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프랑스의 『사형수의 마지막 말』과 영국의 뉴게이트 소설은 기득권적 법질서를 강조하고 옹호하는 탐정소설이 등장하

면서 사라진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에 나타나는 낭만적 범죄자들은 탐정 소설에서 범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재현되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표출되지 못한다. 탐정문학과 같은 범죄문학의 등장이 공개처형과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형수의 마지막 말」이라는 홍보전단의 종말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미셸 푸코(Foucault)의 언급은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탐정소설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의 근대적 기획과 궤를 같이하면서, 범죄자들을 낭만화, 신비화시키는 서사를 봉쇄시켰다. 자본주의적 근대성은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도둑들을 법률적 범죄자의 이미지로 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탐정소설은 무질서를 질서의 감옥 속에 가두는 과정을 통해서 독자를 법 질서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장치로서 과학적인 분석이라는 틀을 끌어들었다.

『주홍색 연구』는 이렇듯 제퍼슨 호프가 낭만적 영웅에서 불법적인 범죄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2부의 낭만적 모험과 복수의 이야기를 단지 범죄의 동기라는 범주로 축소시킴을 통해서 낭만적 범죄 서사의 전복적인 에너지를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범죄자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봉쇄하였다. 따라서 거기에서 시적 정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희미해졌고 법적 정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또렷해졌다. 이제 대중에게 공감어린 낭만적 범죄 영웅은 사라졌고, 새로운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대변하는 냉철한 탐정 영웅이 탄생했다.

궁극적으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는 그렇게 바뀐 세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창을 열었다. 그 창 너머로 제국의 확장과 식민지 지배를 찬미했고, 기득권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타도해야 할 타자로서 간주하고 혐오했던 보수주의자로서의 코난 도일의 세계관이 엿보이기도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 체계에 대한 믿음이나 정의의 승리에 대한 희의를 불러오는 경우가 없지 않는 세상이지만, 근대성과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대변하는 인물은 설록 흠즈를 통해서 구체화 되었고, 『주홍

색 연구』는 셜록 홈즈로 대변되는 탐정 이야기의 탄생을 알렸다.

## 인 용 문 헌

- Asadi, Aaron, and Sanne de Boer. *Welcome to the Sherlock Holmes Book*. London: Imagine Publishing, 2016.
- Booth, Martin. *The Doctor and the Detective: A biography of Sir Arthur Conan Doyle*. New York: Thomas Dunne Books, 2000.
- Davis, Martin Stuart et al. *The Sherlock Holmes Book*. London: DK Publishing, 2015.  
[데이비스, 마틴 스튜어트 외 7인. 『셜록 홈즈의 책』. 이성은 옮김. 서울: 지식갤러리, 2015.]
- Doyle, Conan. *A Study in Scarlet in Sherlock Holmes: The Complete Novels and Stories Book 1*. New York: Bentham Books, 2003.
- \_\_\_\_\_.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in Sherlock Holmes: The Complete Novels and Stories Book 2*. New York: Bentham Books, 2003.
- Fido, Martin. *The World of Sherlock Holmes*. Carton Books Ltd, 1998.  
[피도, 마틴. 『셜록 홈즈의 세계』. 백염미 옮김. 서울: 황금가지, 2016.]
- Foucault, Michel.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Gallimard, 1975.  
[푸코, 미셸. 『감시와 처벌』. 박홍규 옮김. 춘천: 강원대학교, 1989.]
- Gye, Joeng-Meen. *The Genealogy of Crime Fiction*. Goyang: Sonamu, 2018.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고양시: 소나무, 2018.]
- Higham, Charles. *The Adventures of Conan Doyle*. London: Hamish Hamilton Ltd, 1976.
- Hwang, Do-Suu. “A Historical Study on the ‘Rule of Law’ *Administrative Law Journal* 26 (2010): 169-98.  
[황도수. 「근대 법치주의의 이해」. 『행정법연구』 26 (2010): 169-98.]
- Keating, H. R. F. *Sherlock Holmes: The Man and His World*. London: Castle Books, 2006.
- Kim, Sangwook. “Reading a Study in Scarlet and Writing Detective Fiction – Poetic Justice and Practical Ethics.” *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20.2 (2016): 5-30.  
[김상욱. 「주홍색 읽기와 추리소설 쓰기 – 시적정의와 실천윤리」. 『영미문학교육』 20.2 (2016): 5-30.]

- Kim, Wey-Hyun. "The Gap between Crime Novel and Sensation Novel."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1 (2018): 1-26.  
[김외현. 「범죄소설과 추리소설의 간극: 『올리버 트위스트』와 『흰옷을 입은 여인』을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71 (2018): 1-26.]
- Pearsall, Ronald. *Conan Doyle*. Glasgow: Richard Drew Publishing, 1977.
- Sayers, Dorothy L., ed. *The Omnibus of Crime*. New York: Harcourt Brace, 1929.  
[세이어즈, 도로시 L. 『탐정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박현주 옮김. 서울: 북스피어, 2013.]
- Scaggs, John. *Crime Fiction*. London: Routledge, 2005.  
[스캐스, 존. 『범죄소설』. 나영균 옮김. 서울: 서울대학교, 2013.]
- Schatz, Thomas. *Hollywood Genres*. New York: Random House, 1981.

kskangtiger@hanmail.net (강관수)  
cgy12@hanmail.net (윤천기)

논문접수일: 2020. 9. 28 / 수정완료일: 2020. 11. 17 / 게재확정일: 2020. 11. 25